

크레이그 키너 박사, 로마서, 강의 12, 로마서 10:33-12:13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로마서 10:33-12:13의 12회기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부분적으로 로마서에서 자연스러운 중단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되지만 부분적으로는 비디오의 합리적인 시간에 중단함으로써 결정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불순종의 규칙을 교환하여 결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앞 부분의 주제를 요약합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에게 떠올랐을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즉, 로마서 2장에서 내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당신은 내가 언약 신학자이고 세대주의자들이 더 이상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 아마도 당신은 내가 세대주의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언약 신학자들은 지켜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바라건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세대주의인가, 아니면 이것이 언약신학인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서 9장을 읽었을 때 여러분은 '이것이 칼빈주의인가, 알미니안주의인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실제로 친구가 있었는데, 당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당신은 다소 중립적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당신도 나와 동의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나는 중립적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그것이 가는 텍스트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서로 다른 텍스트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말은, 나는 성경신학과 궁극적으로 조직신학, 목회적 적용과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의 초점은 이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언약신학, 세대주의, 또는 다른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 논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이 우리를 이끄는 곳으로 여러분은 그것을 다른 본문과 함께 엮고 그것을 함께 놓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시스템에 맞지 않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더 큰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걸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렇지 않다면, 글썬요, 저는 단지 본문을 설명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싶은지 알아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는 결론적인 송영이 있습니다.

한 부분을 결론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결론을 내리면서 열성적인 수사법으로 한 부분을 결론 짓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책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종종 요약이나 일종의 자극적인 수사를 사용하여 연설 등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글썬요, 송영은 확실히 수사학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송고한 수사학이라 불리는 것을 사용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수사학자들이 때때로 그것을, 때때로 거대한 수사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것은 시적인 것에 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때때로 사람들은 바울의 글에 있는 특정 내용이 바울 이전의 찬송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 일부는 확실히 바울 이전의 자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영이나 거창한 수사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흥분해서 자신을 억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Paul이 이곳과 다른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우리가 보는 방식대로 거의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 운율이 아니라 매우 감동적인 수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1장 34절, 이사야 40장과 13절의 헬라어 번역을 빌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물론 히브리어에서는 누가 주의 영을 알았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묻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8장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또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로마서 12장 2절에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고 했습니다. 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주의 영을 알았느냐? 그러나 그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의 한 측면이 역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이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렌즈인 렌즈를 통해 그것을 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항상 서로 동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학적 렌즈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11:35에서는 욥기 41:11을 인용하는데, 여기저기서 바울에게서 나오는 성경구절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36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전체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로부터,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주권자이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고대 작가들은 종종 다양한 종류의 인과 관계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가 말하기를, 음,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아니면 때로는 사람들이 창조물을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상가들과 실제로 종종 중세 사상가들은 다양한 수준의 인과관계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이 일의 근원인 것처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는 그를 위해 중재하신다는 의미에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목적론적 원인이다.

이것이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전치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다양한 전치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이 과정 전체에 걸쳐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자신의 백성과 열방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 로마서 주석을 인용하자면, 내가 내 주석을 인용하는 이유는 내 주석이 가장 철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나의 로마서 주석은 매우 짧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덕분에 PowerPoint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기관이며 다른 곳에서는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이 제시해 온 신학적 통찰력 중 일부를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 구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어서 그 구절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방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선한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번역한 데는 이유가 있으며, 거기에 도달하면 개별 부분을 분석하면서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적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글에서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신학적 기초를 다 놓은 후, 그는 지원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 그는 사람들의 행동에 적용합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가 여기 로마서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는 그것을 끝까지 행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방식대로 편지를 구성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당화에 관한 것인데 정말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물을 보는 도덕적으로 발전된 방식이 아닙니다. 도덕적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아동 발달의 특정 단계에서는 처벌이 억제력이 됩니다. 이것을 없애면 아이들은 점차적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도덕적 발달의 발전 단계에 이르면 더욱 이타적이 됩니다. 그들이 옳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함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형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리는 것, 12:1 글쎄, 우리는 앞서 신체가 좋은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쁜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좋은 활용 방법입니다. 앞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몸이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6장의 앞부분인 13절과 19절에서 그는 우리 몸을 무기를 의미할 수 있는 하플라(hapla)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로마서 13장에서 군사적 의미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음, 여기, 아마도 6에서는 단지 도구일 뿐이었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몸은 그분의 몸을 섬기게 됩니다(4-6절).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사제들은 제물을 바칩니다.

여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 세 가지 형용사를 제시합니다. 살아있고, 거룩하며, 받아들일 만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음, 이게 무슨 뜻인가요? 희생은 신이 받아들일 수 있거나 기뻐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에스라 6장 10절, 이사야 56장 7절, 예레미야 6장 20절 등 성경에서 희생에 해당 언어가 적용되었으며 바울은 다른 곳에서 비유적 희생을 위해 해당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빌립보인들이 바울에게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레위기 2장, 3장, 10장과 같이 제사가 거룩하다고 언급되는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다. 구약에서 어떤 희생제물의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거룩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라고 말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영원에 비추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리고 희생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일종의 모순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유머러스한 예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모순어법의 예를 제시하지만, 모순어법은 일반적으로 함께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살아있는 희생. 그런데 너희는 소제물 같은 것을 드렸느니라.

당신은 또한 Azazel 염소를 가졌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염소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산 희생을 생각할 때 그것은 일종의 모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따른 희생입니다. 내 말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또 다른 종류의 희생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지만, 매일 우리의 희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인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일부 사람들은 영적인 희생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구약성서에도, 신약성서에도 비유적인 희생의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는 통회하고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17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이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5장과 같은 본문도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과 월삭 등을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요구하는 것은 정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58장 등.

그런데 여기에 어울리는 형용사는 로지코스 희생이다. 이제 로지코스는 특정 맥락에서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로지코스에 관해 말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방금 말한 것과 다시 연결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의 로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성적이거나 마음과 관련된, 로고와 관련된 이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2절에서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어의 의미 범위가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 원어에서 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만큼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분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스토아학파는 대중의 미신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추론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마음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이유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몸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듯이 우리의 정신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맨 처음부터, 형상을 본받는 것과 대조되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대중에게 순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다. 물론 대중 역시 철학자들에 대해 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다.

유대인 현자들은 이방인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변화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게 될 때(8:29 또는 빌립보서 3:21), 우리 몸이 그의 몸과 같이 만들어질 때 경험하게 될 완전한 변화에 대해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몸.

빌립보서 3장 10절, 자기 고난을 본받으라. 하지만 여기서도 이것이 변형되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동 명령인데, 상당히 특이한 일이지만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 그대로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라, 아이온.

코스모스월드가 아니고 아이온월드입니다. 미안해요, 나이. 그래서 우리는 새 시대와 낡은 시대 사이에 대조를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바울의 글, 현재의 악한 시대,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미래에 대한 글에서 아주 흔하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생각은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대조,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평화와 정의의 때, 성령과 메시아의 통치 등. 글썬요, 바울에게서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 시대의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0, 2:6, 8, 3:18. 그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시대의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 현 시대에서 구원받은 자(갈라디아서 1장 4절)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후서 1장, 5장을 언급하면서 미리 맛보는 영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아하본이라는 단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그 영에 대한 체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5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 시대를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새 시대가 아니요 오직 약속된 세상을 뜻하는 새 시대니라 오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갱신. 여기서 새롭게 하는 것은 새로움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는 이전에 그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성령 안의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글썬요, 여기에는 새로운 사고 방식, 새로운 세계관, 사물이 영원에서 어떻게 보일지 또는 다가올 세상에서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 시간을 썼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했습니까? 백만년 뒤에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을 보냈다고 할 것인가? 이 새로운 세계관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후서 5 장 16-17절에서도 그가 의미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전처럼 사물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예전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낡은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왔고, 새 시대가 역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이 되도록 미래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평가하고 영원에 비추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13장 11-14절에서 이에 대해 더 많이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잠들지 마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밤이 거의 다 가버렸네요.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세상처럼 살지 마세요.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 첫 열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11-14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 바울이 앞서 쓴 데살로니가전서 5:2-9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영원의 빛과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은 꽤 분명합니다. 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의 세부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비추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빛, 영원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제가 비극적으로 보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고, 교회가 상당히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종종 그 자원을 맹목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낭비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명을 등한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영원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세세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모든 것을 영원히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박사 과정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최악의 경험을 막 겪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사역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소중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박사 학위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지만, 주님께서서는 제가 그 일을 해야 했던 다른 모든 문을 실제로 닫으셨습니다.

나는 완전히 망가졌다. 주님께서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달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는 내 마음 속으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John이라는 신입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숙사 성서 연구에서 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단지 정치적으로 자신의 순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기숙사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기숙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순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그는 방금 석회질 테스트를 망쳤기 때문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는 미적분학을 통과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저는 제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졌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존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그의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존, 백만과 일 중 어느 것이 더 큰가요? 아시다시피 그는 석회질 테스트를 망쳤지만 이 계산은 쉬웠습니다.

영원과 1년 중 어느 것이 더 큼니까? 분명히, 영원합니다. 내가 말했지, 존, 너는 친구들을 정말 사랑해. 당신이 그들에게 영생보다 더 큰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정도에 걸쳐 성령께서 그를 다루셨고, 하나님은 그를 아주 깊이 만지셨습니다.

그는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즉시 그의 친구들 40명을 불러모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신자가 되기 전에 캠퍼스에서 가장 거친 형제애를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거친 형제애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다치면 그 사람도 취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실수로 문을 콧 담았다던가 하는 거죠. 글썄요, 그들을 병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존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증언이 널리 퍼졌습니다.

요한은 내 생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일대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인터넷, 비디오 게임 등을 통해 플레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몇 년 전에는 평균적인 미국 기독교인, 북미 기독교인이 하루에 3, 4시간을 텔레비전을 보면서 보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4천만 명의 기독교인을 데려가서 1년 365일 동안 하루에 4시간 또는 하루에 3시간씩 4천만 명의 기독교인을 데려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4천만 개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지 숫자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시간을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지역 사회를 섬기거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그 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어날 부흥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실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단지 우리를 즐겁게 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변화를 만드는 종이 될 수 있는지를 위해 영원의 빛 속에서 살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처럼, 우리 각자가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자, 여기서는 새롭게 된 생각과 부패한 옛 생각 사이에 대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인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1:21, 결국 우상을 섬겼습니다, 12:3. 이곳에서 신자들은 우상이 아닌 살아 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은 124절에서 그들의 몸을 더럽혔지만 우리는 우리 몸을 바쳐(12:1)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게 했습니다(12:4,8). 그들은 현대에 속하며 11:8부터 11:8까지의 동사 시제에 의해 암시되는 것 같습니다. 32.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12장 2절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도록 허락하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승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그리스어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어로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12장 8절부터 31절까지에서 그들의 부패한 마음은 이기적인 악덕을 낳았습니다.

우리의 새롭게 된 생각은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행위를 낳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랬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좀 둔감한 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그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12:2). 2장 17절부터 18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새롭게 된 생각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나는 그가 편지에서 이전에 사용한 언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로마서를 읽는 방식은 여기 저기 한 구절을 읽지 않았고 심지어 여기 저기 한 장을 읽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편지 전체가 즉시 읽히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 부분에 비추어 이후 부분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그것이 한 번 이상 읽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러한 연결을 얻게 될 것입니다.

128의 부패한 마음과는 대조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유지할 권리를 인정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못된 마음으로 여겨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승인받지 못하거나 평가받는 자들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12장 2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12장에서 보는 것은 인류의 타락한 지성의 역전입니다. 다시, 우리는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작하는 가정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철학자와 웅변가는 좋음, 완벽함 등의 평가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평가에 관한 작은 만화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성적을 매기라고 했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을 뜻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가끔 머리가 과부하 상태일 때 신학교를 위한 만화를 그립니다.

계속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철학자와 웅변가들은 좋음, 완벽함 같은 평가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최고의 선이 쾌락이라고 생각한 에피쿠로스학파와 달리 최고의 선은 미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완벽하다, 우리가 때때로 완벽하다고 번역하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 다루어지든 완전하거나 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완벽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반드시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적분학 시험을 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다는 것은 고려 중인 영역 내의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완전하거나 성숙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미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무언가가 좋은지 평가했습니다. 연설가들도 같은 일을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철학자로서 항상 최선의 선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좋고, 만족스럽고, 기준으로 완벽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때때로 긍정적인 형용사를 동의어로 축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그의 선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나은 것은 그의 기뻐하는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것은 그분의 완전한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기서는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어떤 것이 좋고 기쁘고 온전하다면 그것은 그분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 처남인 MA 무송가(MA Musunga)는 전쟁 중에 가족에게 다가가려고 돌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면에서 갑자기 충동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는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총격을 가했을 공공 시장.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영은 또한 우리의 영을 다루신다. 영적인 직관, 느헤미야 7장 5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모으는 것을 내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반면, 지혜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종종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줄을 서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곳인 팔머 신학교(Palmer Seminary)에서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학생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이곳에 오라고 제안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가르치는 일을 더 가볍게 하여 글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면 나는 내가 있는 곳을 사랑하는 만큼 바로 그 일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곳에서 나에게 뭔가를 제안했는데, 내가 1년에 버는 것보다 30,000달러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30,000달러라면 어쨌든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나는 친구인 벤 워더링턴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벤, 그게 뭔지 잊어버렸어요. 그가 꿈에서 나에게 조언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요.

방금 내가 그에게 물어본 기억이 났다. 그래서 저는 잠에서 깨어나서 '그건 나쁜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Ben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Ben이 '아, 여기서 자리가 곧 열리니까 여기로 오세요'라고 하더군요.

글쎄요, 저는 기회를 찾고 있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뒤로 갔다. 제 아내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부분적으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사실 나는 때때로 둘 중 하나에 대해 평화를 느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대안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것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Eeny, Meeny, Miny, Moe보다는 이삭이 레베카의 말을 들었다면 야곱과 에서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 후에 주님은 나에게 확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최고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기쁘고, 온전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비전, 같은 사명, 같은 비전을 갖고 세상에 다가가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확실히 Tim Tennant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여기로 끌어당긴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는 문학적 맥락이 필요합니다. 글썬요, 앞의 문맥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기억하십니까? 불과 몇 구절 앞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이 두 본문에서는 한 문단 간격으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12:1은 연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것은 앞의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9장부터 11장까지, 어쩌면 1장부터 11장까지 모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한 11장 34절에서는 역사를 배열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통찰력 중 일부를 우리와 공유하십니다. 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지식 중 일부를 우리와 공유하시고, 그분의 지혜 중 일부를 우리와 공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종종 신성한 지혜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일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음 문맥은 이 새롭게 된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마음입니다.

생각하는 주제는 3절에서 계속됩니다. 자신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신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남보다 낫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자신은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문제를 갖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는 몇 구절 후에 이것과 매우 유사한 것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언하십시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나중에 예언에 관해 언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척도, 표준, 성경의 정경에 따라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복음의 기본 메시지. 음, 신학적으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내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메시지가 시험된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메시지가 시험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역사 전반에 걸쳐 말씀하신 내용에 모순되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다른 것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이것이 믿음이 다른 은사들에 할당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선물로 표현될 또 다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선물로 표현될 또 다른 믿음을 측정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 각자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낫습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공부할 때 그 내용이 제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저를 통해 흐르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년, 수년, 수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선물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나는 앞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바로 그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으며 모든 은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내려다볼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된 생각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은사와 육체의 필요가 일치하는 곳에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를 위해 추가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특정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은사가 없다면, 음,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4장 1절처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4장 1절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책망하는 사랑 장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는 이미 편지에서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스스로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세우기 위해 그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글썄, 당신도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특히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서로를 위한 사역을 위해 특별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하나님께 그 은사를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선택할 경우를 대비해 마음을 열어두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후에 그는 누구를 보냅니까? 그가 노동자가 고용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어로 노동을 뜻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일부 책에 대한 특별한 리드를 가졌습니다. 계시록 주석과 마찬가지로, 나는 Zondervan을 위한 계시록에 대해 뭔가를 써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Zondervan에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요한 주석을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Zondervan의 편집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시리즈의 오프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논평 중 하나를 써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방금 공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음, 알다시피, 저는 이것을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나에게 빌레몬서나 요한삼서 같은 것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나는 그 책이 어느 책에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시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 그렇다고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경 해설과 같은 다른 것들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제게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작성하지 않으면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정 리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다. 왜 안 돼? 그리고 이 로마서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시리즈의 공동 편집자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요청한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보다는 '보세요, 언젠가 큰 로마서 주석을 쓰기 위해 이 정보를 모아두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썄, 내가 앉아서 이 작은 글을 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냥 하면 안 될까? 그래서 그것이 제가 로마서 주석을 했던 방법이고 그들이 제가 이 비디오를 하도록 허락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된 마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새롭게 된 마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2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을 더 큰 맥락, 즉 구원 역사의 맥락(11:34), 주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의 맥락(12:4-6)에 배치합니다. 따라서

더 큰 맥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입니다. , 역사 속에서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더 큰 맥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최적의 방법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딴 이름과 영원의 빛에 비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게 하십니다.

12:9-21. 여기에 흔히 파라네시스(paranesis)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권고의 목록을 갖고 있다는 뜻의 용어였습니다. 종종 이것은 느슨하게 연결된 권고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일종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배열하는 방식에는 고대의 어떤 형태의 피해망상보다 더 논리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일부 잠언처럼 무작위로 배열된 것도 아니고, 잠언에 나오는 많은 잠언이 그렇듯 무작위로 배열된 것도 아닙니다.

12:9-21에는 이 두 구절 모두에서 선과 악이 비교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12:9-21에서는 대략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14-21이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료 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12:9-13, 그리고 12:14-21에서는 동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먼저 동료 신자들을 대하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10-12에서 우리는 다양한 권고에 대해 배웁니다. 그 중 하나가 형제애, 필라델피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형제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종종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가족처럼 대하십시오.

글쎄요, 때때로 가족과 논쟁을 벌이더라도 여전히 가족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므로 화를 조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대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많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 동료 신자들에 대한 가족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보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고대 지중해 문화는 명예와 수치심을 매우 강조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많은 문화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에는 어떤 면에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대 남성적인 도시 지중해 문화, 특히 로마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 경쟁하는 문화였습니다. 경쟁문화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 서로를 더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가끔 크로스컨트리를 달리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자매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가 잘하면 나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명예를 기뻐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견디느니라. 글썄요, 그는 이미 5장 3절부터 5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을 견디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수사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은 귀에 매우 즐거울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일이죠. 반복은 요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어에는 10절과 11절에 *oy*로 끝나는 세 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에는 온테나 운테로 끝나는 7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지하거나 감정적으로 자극할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고 손님을 대접하라는 몇 가지 권고를 더 제시합니다.

글쎄요,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이미 구약 전체를 통해 강조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 평안함을 줄 때에 너희 중에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인즉 너희는 궁핍한 자를 돌보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가 충족되어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가난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단체적으로 필요를 공급하실 때, 개인적으로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여러분의 필요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주는 사람이 궁핍해지고 누군가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관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후원자에 대해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의 혜택은 일반적으로 건물 헌납과 같은 시민 혜택이었고, 그런 다음 건물은 그들을 기리기 위해 헌납되고 그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비문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는 빈곤을 지속시키는 사회 구조를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역시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1세기에 상당히 작지만 성장하는 운동이었던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빈곤의 근본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환대.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초에 교회 안에 근본주의자와 현대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었지만, 신앙의 특정 기본 원칙에 대한 19세기

복음주의 전통을 이어가는 근본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진정한 초자연적 현상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항상 믿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두 그룹 모두에서 제외된다고 믿는 다른 기독교인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동정녀 탄생을 믿으며,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정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9세기 복음주의자들에게서 다른 것들을 따랐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때로 근본주의자와 현대주의자는 서로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근본주의자들은 모더니스트들에 대해 '원래로 돌아가자'고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1940년대에는 중간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1940년대에는 빌리 그레함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은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본을 가르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사회적 참여 등을 가르칩니다. 오늘날에도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거나 성경이 가르치는 다른 특정한 것들을 믿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는 그런 유산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단지 일부 교회 전통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임의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 전통에서는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는 그런 전통을 만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톨릭 사회 가르침은 이 문제에 관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어쨌든, 전체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때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말할 때 여러분 중 일부는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아마도 가치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어쨌든 환대는 고대 지중해 전역, 특히 유대교에서 널리 퍼진 가치였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특히 동료 유대인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 때로는 회당, 종종 자신의 집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그것은 남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받아들일지 조심해야 하지만, 종종 사람들은 이전 도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곤 했습니다. 종종 그들은 최대 3주 동안 사람들을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환대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카메룬에서, 지금은 아내가 된 나의 약혼녀가 전쟁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약 8개월 동안 카메룬에 있는 무마스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여준 환대와 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 친구 Charlemagne에게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환대(hospitality)가 주요 강조점이었고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또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글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12장, 14장부터 21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들 중 일부에는 외부인뿐만 아니라 동료 신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14절과 그 다음 17절부터 21절까지는 실제로 원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15절과 16절은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자들과 함께 올라. 그것은 또한 매우 가치 있는 윤리이자 고대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유대에서는 랍비가 지나가는 결혼식 행렬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 학교를 내보내고 모두 가서 결혼식 행렬에 합류한다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그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며 장례 행렬에 합류하곤 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낮은 자들과 교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은 자신의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종종 누가복음 2장에서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렸고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구 조사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서사를 옮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서사는 아우구스투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이며 아우구스투스보다 더 위대한 왕에 관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오래전부터 재 속에 화장되었지만, 영원히 다스리시는 참되고 영원한 왕이 바로 그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이러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궁전에서 통치하는 강력한 황제가 있고, 신전에서는 황제를 숭배하고 환호하며 황제를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평화인 파스 로마나를 가져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파르티아가 알고 독일인들이 알고 있듯이 허구일 뿐입니다. 당시의 영국인들은 여전히 알고 있었고 누비아인들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세주이자 로마세계의 은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의 생일은 실제로 로마 세계 전역에서 축하되었습니다.

여기 진정한 왕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는 동물 먹이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위대함을 축하하는 사원이나 지상 합창단이 없습니다. 대신에 지상의 평화, 인류에 대한 선의를 외치는 천상 합창단이 있습니다. 참된 구원자가 너희에게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시요, 저 성전에서 일컬어지는 가이사 주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그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는 궁전이 아니라 동물 먹이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고 이 사실이 밝혀진

사람들은 대부분의 고대 도시 문화와 종종 농업 문화에서도 하층 계층으로 간주되고 종종 농업 문화에서도 아웃사이더로 간주되었으며 구약에서는 존경을 받았지만 때때로 랍비들에 의해 확실히 무시당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도시 문화 등에서 무시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낮고 상한 자들 가운데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우리가 비천하고 부서진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권력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비천하고 부서진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임재를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은 하나님도 강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강한 사람이라면 부서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강력한 상황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낮은 자들과 교제합니다. 12장과 16절에서 자신이 현명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론눈테스, 돌아와서 16절에서 다시 프론눈테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음 프로니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마음과 지혜, 올바른 사고 방식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할 방식입니다. 그것은 12.3에서와 같은 동사인데, 당신이 생각해야 할 것보다 당신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자들과 어울리며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인식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12.14와 17-21에서 그는 우리가 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악을 갚지 마십시오. 그들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원수를 친구로 삼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여 악을 이기십시오.

다음 세션에서는 외부인을 향한 이러한 행동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한 다음 13장 1-7절로 이동하여 국가와 기업 그룹 전체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 8-10절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로마서 10:33-12:13의 12회기입니다.